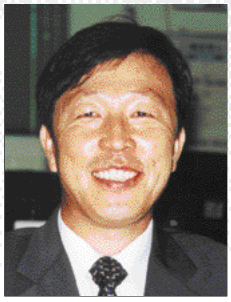
건설인과가정생활

건설 기술자들의아내들이‘ 남편은집안에서는내 남자이지만 밖에서는 남의남자 라고 하소연한다는소리를 종종듣는다.
이말에“ 나는 절대그렇지않다 라고반문할수 있는건설 현장의 기술자들이 과연얼마나있을지의문이다.
그래서우리의지난 과거생활이그러했었고,
지금또한 그러한 생활을하고있지는 않는지 모두한 번쯤반성해보아야 할것이다.



김태봉
태영건설부장

오늘하루도여느때와같이새벽잠에서깨어바쁜발걸음을 재촉하며 일터로 나선다. 이른 새벽임에도 건너편으로보이는아파트에는불빛이환하게켜진집들이 보인다. 아마추측컨대고3 수험생을둔가정이아니면나와같이건설업에종사하는같은동료들집이아닌가싶다.

필자는이지면을빌려‘ 건설인과가정생활 이라는주제로얘기를해보고자한다.

필자가지난이십여년동안건설업에종사하면서가장 아쉬웠던 것을 이야기하자면 가정과 가족에게 충실하지 못했던 점이다. 지난 이십여년 간의 필자의 생활은이렇다. 새벽 일찍 출근하여 장비의 굉음 소리와 함께 일과를 시작하였다. 일과 후에는 동료들과의 여흥 시간 등으로 인하여 늦은 귀가는 습관처럼되어있었고, 달력의붉은글씨는나와는아무런연관도없는생활의연속이었다.

이것이어찌나만의일과라하겠는가? 모든건설인또한같은생활의연속이아니겠는가?

건설기술자들의아내들이‘ 남편은집안에서는내남자이지만밖에서는 남의 남자 라고 하소연한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이 말에 “ 나는절대그렇지않다 ”라고반문할수있는건설현장의기술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 과거 생활이 그러했었고, 지금또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두 한 번쯤반성해보아야할것이다.

건설현장에근무하는아버지를둔자녀들도다른집들처럼토요일, 일요일또는국가공휴일이면아빠와함께유원지도가고싶고, 놀이공원에도가고싶을것이다. 아니그것이어렵다면아빠와함께 할수있는시간만이라도갖고싶을것이다. 우리건설하는아버지들은이런점을익히알면서도일을핑계삼거나혹은집에서멀리떨어져있다는점을내세워애써외면했던것은아닐까?

어느덧‘ 아빠없는자녀 로자라고있는우리자녀들에게 지금부터라도 가족과 함께하는 가장이 되고 가정의 버팀목이될 수있는가장으로다시금태어나보자. 더구나 지금 우리 건설 기술자들의 아내들은 자녀의 커가는 이야기며 가정사 등 하고픈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비록 몸은 힘들지라도 사랑하는가족과 함께대화를나누는시간을가지며, 즐거움도슬픔도함께할수있는가장이될수있도록노력해야겠다.

회사내에서의일또한그렇다. 현장을관리해보니아래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해주고, 자식들이라생각하며 타이르고 가르치면 어떠한난관에부딪혀도직원모두가합심하게되고모든것이원만하게해결될수있었다.‘ 직위에연연하지말고직책에충실하자 는말을가슴속깊이되새기며생활하다보면모든것이순리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다.

필자는항상직원및현장근로자들에게“ 가족으로부터사랑받는 가장이되어야 한다 ”고강조하고 있다.‘ 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언급하지않더라도가족이평안해야모든일이잘된다는것은고금의 진리이다. 더욱이안전사고 등 재해 요인이 많고, 일순간의방심이 부실을 부르는 건설 현장에서 마음의 평안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한요소라할수있다.

건설기술인 여러분! 우리모두 일과 가족의 사랑을쟁취하는 지혜로운사람이됩시다. 가족과동료들이사랑하고신뢰하는가장, 직장인이됩시다. 그래서건설현장이사고의근원지이고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씻어버리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건설기술인이됩시다.